

주의 기록한 변모 축일

기도서 498면(다해)

제1독서: 다 니 7,9-10.13-14

제2독서: 2베드 1,16-19

복 음: 루 가 9,28b-36

순정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었다”

(루가 9,29-30)

“하나 될 때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민족에겐 충격과 혼돈의 한 주간이었다. 홍수, 태풍, 추락... 하루가 멀다 않고 이어지는 대형참사들 앞에 놀래기도 지칠지경이었다. 특히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임수경' 양을 맞기 위한 문규현 신부의 북한 파견, 이에 대한 주교단의 「유감표명」 등의 잇달은 보도를 접하면서 심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더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교구 소속 박병준(평화동 주임) 신부가 구속되고 문규현 신부(미국 유학)에게 이미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김선태(전동 보좌) 신부 또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현 시점에, 한 민족으로써 더우기 같은 천주교 신자, 같은 교구 소속 신자로서 어찌해야 되는지 무척 난감해 하리라 생각되어 다음 몇 가지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 불의의 화(禍)를 당한 형제들에 대해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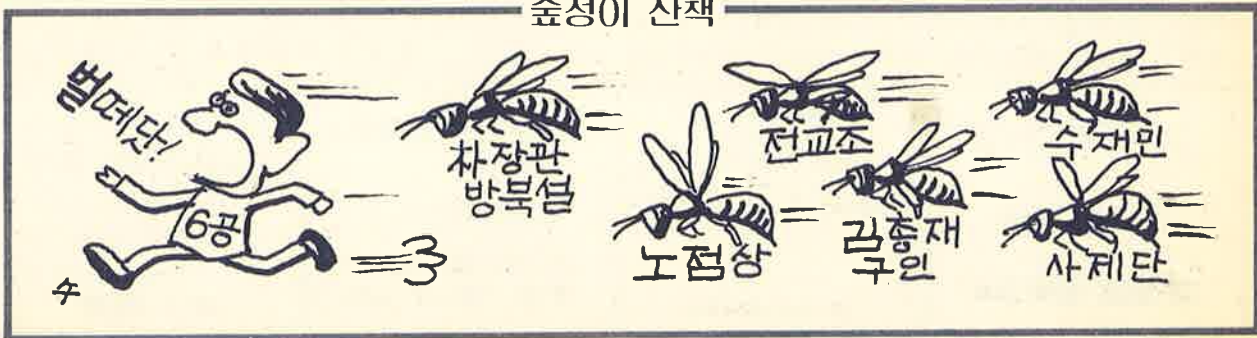
주님은 말씀하셨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아주며,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 주고 나그네된 사람은 따뜻한 곳이 있어라. 그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너희 구원의 기준이 되리라” (마태25, 31-46)라고. 또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 간다 (마태8, 21).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5, 16). “여러분은 사람이 믿음만으로 하느님과 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야고보2, 24)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불의의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다른 예수”를 외면하지 말아야겠다. 그들을 돕기 위한 교회적 사회적 자선 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통일논의와 문규현, 박병준 신부 사건에 대해서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에서는 지난 7월25일 “우리사제단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따라 통일 세대를 상징하는 임수경(수산나)양을 품을 이웃이 될 마음으로 사제단의 대표

자격으로 문규현 신부를 북한에 파견해 임양과 함께 판문점을 거쳐 귀환토록 결정한 것입니다”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있다. 이에 대해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충격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하며 마땅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자칫 통일에 관한 천주교 내의 「정의구현 사제단」과 「주교단」의 심각한 대립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 성명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양측 공히 오늘날 이러한 불미스런 사건의 원인은 지난해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이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이었음에도 이 선언이 불편없이 최대한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 사건 및 금번문신부 파견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또 주교단은 “천주교 신자들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통일을 향한 대장정에 동참하고, 특히 제44차 서울 세계 성체 대회에 앞서 벌이고 있는 「한마음 한몸운동」을 떠나가고 있는 이때, “동족인 북한 형제를 더욱 생각하고 통일을 재촉해야 한다”고 발표하므로 양측 모두 실천 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근본 취지와 방향은 거의 같은 맥락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교우들은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행동함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행동이나 주장이 결코 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주도됨으로 교회에 분열과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분열된 교회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부재인 교회, 교회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유독 앞질러가는 사람도, 비겁하게 뒤처지는 사람도 없이 온 교회가 하나되어야 할 때이다.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또한 통일에 대한 열망 때문에 구속되고, 구속될 신부님을 위한 앞으로의 모든 일은 교구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온 교구 신자들은 순교자적 정신으로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으로 하나되어야 할 때이다.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시편22).

순정이 산책



현 시국에 대한 한국천주교 주교단 담화문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화와 함께 통일을 향한 열망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국민 개개인은 희망 혹은 고통을 느끼며 나름대로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천주교 신자들도 이 나라 국민으로서 함께 통일을 향한 대장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진 교회는 북한 선교에 임해야 할 것임을 스스로 깨닫고 서로의 힘을 모을 것을 기대하며 한국 주교단은 “남북 통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교단 산하의 정의 평화 위원회와 북한 선교 위원회의 “통일 논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4개 정당(민정, 평민, 민주, 공화)의 통일 정책을 각각 청취하며 주교단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사목 대책을 연구하려 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앞두고,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임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여야 할 한국 교회가, 또한 국내적으로 “한마음 한몸” 운동을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동족인 북한 형제를 생각하고, 통일을 재촉하며, 형제가 사랑의 일치로 이루고 싶은 마음은 그 누구에게나 간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은 각각 독자적이며, 서로 이질적인 두 체제로 분단되어 살아온 지가 40여년에 이르고, 모두가 통일을 염원하고 있으나 통일된 나라의 모양을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도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기에 통일이 우리의 마음같이 단숨에 이루어지리라고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4개 정당의 통일 정책의 기본방침도 남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 공존의 단계를 거치며, 단일 국가로의 통일을 성취하는 길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공통된 기초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모두 대북한 창구의 단일화와 동시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난해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은 참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천주교회의 지도자들도 대단히 훌륭한 정신이 담겨있는 선언으로 환영하여 마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 선언이 불편없이 최대한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실한 세부지침이 없었고 기쁜 마음으로 통일에 헌신코자 한 사람들이 단지 그 성급함 때문에 깊은 좌절을 맛보게 한 것도 사실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이 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면서 개별적으로 통일을 위한 대화에 나선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제의에 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그들은 거의 기독교인이며

천주교 신자이므로 인하여 천주교가 마치 옹공 집단인 것같은 오해를 받기에 이른 것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밝힐 것은 천주교는 근본적으로, 무신론이며 유물론인 공산주의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산주의자들도 인격적인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인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협상과 개인적인 차원의 친교 내지 대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불명확한 한계의 어려움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모든 대화와 교섭은 특별히 신중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뜻밖에도 정의 구현 사제단이 기자 회견을 통하여 발표한 문규현 신부의 파견에 대한 소식을 충격과 함께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이 한국 천주교회에서 공인한 단체가 아니더라도 천주교 신부의 단체라는 점에서 주교단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을 촉진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수용하지 못할 행동이 앞섬으로 인해, 많은 국민에게 우려와 불안을 준 것은 마땅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체에 우리 주교들도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 사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든 상관없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각자가 행동하며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기 주장이 과도히 분출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하루 속히 보다 거시적이고 올바른 판단으로 신중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좀 더 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존중하는 시민 정신의 확립이 시급한 형편이라 하겠습니다. 법질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질서도 하루 속히 정립되어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물질주의, 쾌락주의, 금전만능주의와 이기심이 절제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사회가 이루어 지도록 한국 천주교회는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사회를 이루지 못할 때 통일은 더욱 요원한 것이 될 것임을 우리는 염려하며 사랑과 일치와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시 다짐하는 바입니다.

1989. 7. 27.

한국천주교주교단

상관복숭아

상관천주교회

☎ 82-5434

한글, 한문
기초부터 개별지도
(주부반 특별편성)

명륜서예학원

원장 선기정 (요셉)

효자성당 앞

☎ 82-6492

**언론탄압 중지하고
안기부를
해체하라!**

한겨레신문 군산지국
☎ 61-1120, 61-1474

미는 여인의 소망입니다
미스탑여인의 도시

고영길 (빈첸시오)
서복례 (세시리아)

전주시 금암1동 526-21(한나학원 앞)

☎ 5-0535

강론

예수님의 얼굴

정 태현 신부 / 용안천주교회

근년에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보관된 예수님의 시체를 덮었다는 염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그 진위 여부가 어떻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염포에 찍혀진 인간의 형체는 끔찍한 고통의 흔적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두 발과 두 손에 못자국이 있고 얼굴엔 가시관을 씌운 흔적이 뚜렷하다.

이런 형체를 지닌 장본인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그분이 육화되신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셨음을 생각할 때 고통에 갇혀진 인간의 모습을 그분의 모습과 충분히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토리노의 염포에 고통의 상흔을 깊게 남긴 인간의 형체는 예수님의 형체라고 말할 수 있다. 혹시 그 염포가 중세기에 조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드러난 처참한 몰골은 극도의 고통 속에 죽어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예수의 변모 축일이다. 예수께서 타볼산에 올라 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축일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앞당겨 보여 주시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복음서들 당히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앞뒤에 예수님 자신의 수난에 대한 예고를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루카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의 한복판에서 그분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자신의 수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고 증언한다(루가 9, 31).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과 수난을 함께 조명하는 복음서들의 지혜와 만나게 된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도 동시에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전에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거쳐야만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부활의 영광 속에 계신 예수님은 다시 고통받는 인간들 모두의 모습 속에 숨어 계신다. 얼마 전에 의사체로 발견된 이철규군의 처참한 모습 속에도 그분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을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대로 “몰골이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이사 52, 14) 형태로...

요심이 (835) 김병오



직원모집

1. 모집부문
교구청 야간숙직 남 1명
2. 자격
건강한 만40세이상 천주교 신자
3. 제출서류
사본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접수기간
89년 8월 8일까지(85-0041~3)

전주교구청

조립식건축의 완성

京一建業

김해선 (레미시오)

전주시 서노송동 흥국생명 옆

☎ 73-1611, 75-0161

장택스아이리

정전에 다함니

수시모집·원장 직접 개인지도

전주노라노한복·양재

흥패션학원

원장 김형문 (대리인드레아)

동부시장앞

☎ 86-2715

교구소식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

금번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우리 교구뿐 아니라 이웃 광주 교구내 많은 수재민들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과의 나눔을 위해 본당 실정에 따라 2차현금이나 특별헌금을 실시, 8월 10일까지 교구청에 보내주시면 수재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교구참사회 : 8일 10시 30분 교구청 회의실
2. M.B.W 현대복음화 과정 공동체 수련회 : 8월 7일~9일 오전10시 센타집결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접수 : 교육국-(85-0041)
3. 사회복지 후원회(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8월 7일(월) 10시 30분 사회복지회관
4. 전화변경 : 금암성당-사제관 251-1912 수녀원 251-1913 사무실 251-1911
5. 축/영명 : 8일(성도미니교) 강인찬 신부님 10일(성라우렌시오) 박진량 신부, 범선 배 신부, 전대복 신부, 박기준 신부님
6. 전주 교구청 FAX : 85-0119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연지·곤지·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무대복·미용대어
비디오·아이스빙촬영
신부회장

전동성당 사내버스 승강장

☎ 82-2347

각종운전 대행

풍남운전대행사

초보운전자지도(서비스)
기사채용 알선
여학생기차량 알선

김종성 (베드로)

☎ 84-1318

맥코이 이온정수기 (보건사회부 허가 제210호)

— 수도직결 순간 이온정수기 —

“맥코이 이온정수기가 만든 알카리성 칼슘 이온수는 맛있는 물, 살아있는 물, 의료효과가 있는 물”

KBS-2TV : 월~금요일 아침8시30분 생방송(전국은 지금)에 TV광고 중

(주) 모리아크리스탈전북사업본부 사업부장 서동주(스테이크)

전주시 금암1동 706-4(합동시외버스터미널 산다방 2층)

☎ (0652) 75-1654, 77-4312

※ 교우성당 및 문의전회 환영 ※ 직원모집 : 운전면허1종, 오토바이 소유자(교우회원)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 인 석
수녀원 82-9662

1. 세례대상자 집중교리: 7일-12일 저녁8시 집중교리에 참석하지 않는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례대상자 면접-10일 오전10시-12시 오후3시-6시 저녁9시이후
 2. 현대복음선교 묵상회: 7일-9일(남녀 노소 환영함)
 3. 남성푸르실로 33차: 10일-12일 김용팔, 김기철 많은기도 바랍니다.
 4. 신우APT구역 형제회: 7일(월)8시 양노섭 형제 신우APT7동407호
5. 주일학교 어머니교실: 10일(목)10시-4시 학부모님의 많은 참여바람
 6. 모임: 울뜨레아-오늘 공식미사후 부녀회월례회-8일 어머니미사후 성령기도회-10일8시 M.E국화모임-11일 8시 정진우씨택사목회월례회-11일 8시 꾸리아월례회-13일 2시
 7. 탈상미사: 12일(토)11시 백백남(루시아)의 시모 송안나
- ☐지난주봉헌금: 618,410원 ☐교무금: 380,0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 일 균
수녀원 86-3454

1. 대건회: 오늘 공식미사후 2. 사목회: 오늘저녁미사후 3. 빈첸시오회: 8일 오전10시 4. 지모회: 10일 오전10시 5. 안나회: 10일 오전10시 6. 여성분과회: 12일 오전10시
 7. 울뜨레아: 13일 공식미사후 8. 꾸리아: 13일 오후2시 9. 청년회: 13일 저녁미사후
 10. 감사: 여성성경학교 및 중·고등부 수련회 찬조금-김동환, 최창기50,000원 신협40,000원 사목회30,000원 송래지나, 빈첸시오회, 이재호, 익명20,000원 나유선, 익명, 장세환, 이영일, 이상인, 조복연10,000원 구세주의 모친11,000원 백연주, 소오영5,000원 계331,000원 누계1,265,000원
 11. 용안성당돌기 바자회 티켓판매: 1장 3,000원
-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유대식 ②노부영 봉헌-유대식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상인 독서①오장수 ②정강선 봉헌-오장수씨 부부 ☐지난주봉헌금: 467,170원 ☐교무금: 796,85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 순 천

1. 첫영성체교리: 10일(목)-12일(토) *부모님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구역미사: 10일(목) 수월
 3. 성모승천대축일및 본당의 날 행사: 15일(화), 공식미사 한대만 있음, 공식미사후 축하행사 있음.
 4. 금주전례: 해설-구영순 봉헌-안정만 박순귀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승복 봉헌-조재철 황옥섭씨 부부
 5. 중·고생 야유회: 오늘 학생미사 없음. 오전8:00 변경
 6. 목주기도 봉헌: 4,865단 누계34,440단
 7.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
- ☐지난주봉헌금: 236,76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 석 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 환 용
수녀원 84-2276

- *오늘은 주의 거룩한 번오 축일입니다.
1. 회의: ①사목회-8월9일(수) 오후8시 ②반장단합대회-8월8일(화)오전10시 장소-색장리다리 *전원 참석바랍니다. ③성성회-다음주일 ④프란치스코3회-다음주일 오후2시
 2. 모임: 전례부-다음주일 저녁미사후
 3. 알림: ①푸르실로수장-남성33차 황레오(현규) 전이사악(승원) *주님의 많은 은총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②세계성체대회 참석 하실분 신청받습니다. 다음주일부터
 4. 감사: 초등부 여성성경학교에 협조해 주신분들께 특히 자모회 원님들과 교리교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지난주봉헌금: 375,860원 ☐교무금: 244,000원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 점 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오 직 한

1. 8월8~9일(화, 수) 평일미사 없습니다.
 2. 초등부 교리교사 모집합니다.
 3. 꾸리아 모임: 오늘 공식미사후
 4. 청소년사: 8월7일~12일 서완산동2가 동편
- ☐지난주봉헌금: 190,750원 ☐교무금: 76,000원
☐신축헌금총액: 13,310,000원(입금10,045,000원)

*전동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이 수 현
유치원 84-8347 레이아 83-5085 보좌신부 김 선 태
사제관 82-6232, 82-7245 사목회장 안 득 수

- *설전보수헌금 바랍니다.
1. 돈보스코: 오늘 공식미사후
 2. 구역봉사자모임: 오늘저녁7시30분
 3. 구역장·반장성지순례: 7일(월) 배론성지
 4. 본당신부님 반기대회 순시: 8일(화)~11일(금) 8일-전동1,2반 경원동, 다가동, 중앙동 9일-동교동1,3,4,5,6반 10일-서교동1,3,4반 동교동7,8반 11일-서완산동1-3반, 풍남동7반, 남노송동7,8반 *다음주에 수재민을 돕기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5. 사목회: 13일 공식미사후 6. 세계성체대회신청: 차량계약관계로 8월15일까지 접수마감합니다.
- ☐금주보수비헌금액: 6,132,000원 ☐현재모금총액: 51,427,890원
☐현재신입총액: 180,967,15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 병 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 광 환
수녀원 87-0229

1. 본당신부님의 석방을 위한 기도회: 매일 오후7시30분-8시
 2. 오늘은 수재민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3.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4. 신축헌금및 울젠기금 모금에 많은 봉헌이 있기를 바랍니다.
 5. 금주전례: 해설-함본권 복사-이완규 박해근 봉헌-김중환 부부 차주전례: 해설-정순태 복사-최 춘 김덕동 봉헌-이충원 부부
- ☐지난주봉헌금: 370,820원 ☐교무금: 198,500원
☐자신헌금: 24,600원 ☐울젠기금신입총액: 3,975,000원 ☐신축금신입총액: 149,339,836원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 중 한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 대 현
수녀원 84-4804

1. 성모승천반 영세대상자 집중교리: 8.8-8.12 오후7:30-9시 까지 영세식-8월13일 오후6:30분 2. 모임: ①글라라회-금주 수10:30 ②울뜨레아-다음주 11시미사후 야외에서
 3. 제대꽃 봉헌: 제대회원들은 매달 꽃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애비자 교리반모집: ①주부반-삼요일 오전10시미사후 ②일반-직장인반-일요일 오전9:30분 수요일 오후7:30분 ③학생반-일요일 오전9:30분
 5. 유아세례: 다음주 오후5시
 6. 청소년담당: 금주-신촌주매 차주-협동은성
- ☐교무금: 1,413,500원 ☐주일학교: 13,230원
☐중·고등부: 38,290원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 창 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 용 무
수녀원 87-0711

1. 사목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후
 2. 새벽회 임시총회: 오늘 저녁미사후
 3. 도미니교회 단합대회: 8일(화) 오산천
 4. 설모회: 11일(금) 어머니미사후
 5. 공소미사: 11일(금) 15:00 독매 20:30이서
 6. 꾸리아 월례회: 12일(토) 오후1:30
 7. 감사: 초중고 여성성경학교에 협조해 주신모든 분들에게!
 8. 박병준(필립보) 신부님의 통일염원에 적극 동참합니다.
 9. 차주모임: 울뜨레아 월례회의
- 금주전례: 해설-김인규 독서①한정훈 ②황발자 기도-표근중 김영자 차주전례: 해설-한병갑 독서①남상용 ②최윤희 기도-김광택 문옥선 ☐2차헌금: 239,370원
☐지난주봉헌금: 396,150원 ☐교무금: 655,000원